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신미지 간사 02-723-4250
endthekoreanwarrior@gmail.com)
제 목 [보도자료] 21대 국회,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해 하나로 모인 시민들의 움직임에 응답하다
날 짜 2021. 04. 27. (총 4 쪽)

보 도 자 료

21대 국회,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해 하나로 모인 시민들의 움직임에 응답하다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에 국회의원 60여 명 동참

1. 4.27 판문점 선언 3년을 맞아 6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서명과 인증샷으로 동참하고,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위해 하나로 모인 시민들의 움직임에 응답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이 진행한 이번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국회의원 서명 요청 행동 :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한 여정에 국회도 함께 합시다>](#)에는 일주일간 4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메일과 전화로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게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 동참을 요청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2.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3년 전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 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지만, 아직 새로운 시대는 오지 않았다”며 “2018년 어렵게 맺은 남북·북미 합의가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이대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에 국회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또한 “평화를 위한 노력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야 하지만, 그동안 국회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다”며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비롯해 종전선언과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결의안들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선언에 대한 21대 국회의원 300명 모두의 서명이 모인다면,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목소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국회의원 서명 요청 행동의 취지를 밝혔다.

4.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과 인증샷에 동참한 의원들은 “21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고 노력하겠다”(이형석 의원), “전쟁을 일상으로 알고 살았던 70년, 그냥 너무 긴 이 전쟁을 우리 손으로 끝냅시다”(배진교 의원), “한국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은 군비경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분단 유지비를 ‘승자 없는 소비’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박찬대 의원) 등의 의견을 함께 전하고, SNS에 올리며 시민들의 동참을 요청하기도 했다.
5.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지금까지 동참한 60여 명의 의원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한반도 평화선언에 대한 지지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캠페인은 앞으로도 국회의원 서명 동참 요청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며 나아가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지와 서명도 모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6.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판문점 선언 3년을 맞아 지난 4월 19일(월)부터 27일(화)까지 한반도 종전 평화 집중행동 [<우리가 평화의 봄을 만들자>](#)를 진행하며,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요구하는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전 세계 1억 명 서명운동을 국회와 전국 지자체로 알리고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7.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라는 목소리를 전 세계적으로 모아가는 국제 캠페인으로 7대 종단을 포함해 국내 36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50여 개 국제 파트너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2020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전 세계 1억 명의 서명과 각계의 지지 선언을 모으고 연결하여,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끝.

❖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국회의원 서명 요청 행동 ‘한반도 종전 평화를 위한 여정에 국회도 함께 합시다’ 페이지](#) (동참한 의원 명단과 인증샷 확인)

▣ 붙임1 :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 동참 국회의원 명단

▣ 붙임2 :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전문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서명에 함께한 국회의원!



▣ 붙임1 :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 동참 국회의원 명단 (가나다 순)

더불어민주당 (51명) 강득구, 강준현, 고영인, 김경만, 김경협, 김남국, 김성환,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남인순, 도종환, 문진석, 민병덕, 박재호,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서영석, 설훈, 송갑석, 신영대, 신정훈,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오기형, 유정주, 윤건영, 윤미향, 윤영덕, 이규민,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원욱, 이재정, 이탄희, 이학영, 이형석, 임종성, 전용기, 조오섭, 진성준, 허중식,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정의당 (4명)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열린민주당 (2명) 강민정, 최강욱

무소속 (1명) 김홍걸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합시다
-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듭시다
-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합시다
-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합시다

이제는 전쟁을 끝냅시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분단과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 전쟁이라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수백만의 사상자와 천만 이산의 고통을 가져온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입니다. 냉전 시대 한반도에서 벌어진 정치적·군사적 대결과 갈등으로 한반도 주민들과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분단과 적대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그 고통을 끝내야 합니다.

다시 적대와 불안이 지배하는 시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냉전이 끝난 30년 전 남북은 상호존중과 불가침에 합의하였습니다. 20년 전 남북은 첫 정상회담을 열고 전면적인 교류 협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8년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쟁을 끝내지 못한 대가로, 신뢰가 불신으로 바뀌고 긴장이 높아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이뤄낸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걸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슬픈 상황입니다.

지난 역사는 상대를 불신하고 굴복시키려는 적대 정책이 한반도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고 도리어 악화시켜 왔음을 보여줍니다. 불안정한 휴전 상태의 한반도는 핵 전쟁의 위협에 시달려왔고 세계적인 핵 군비경쟁과 확산을 촉발하는 장이 되어왔습니다.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면 한반도 비핵화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국 정부들이 한국전쟁을 끝내기 위해 진지하고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전 세계인의 마음을 모아 대결과 분쟁의 상징이었던 한반도를 평화와 공존의 산실로 바꿔냅시다

한반도 주민들과 동아시아, 세계 시민들이 서로 협력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상상합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대신, 우리의 자원을 시민의 안전과 행복, 지속 가능한 환경,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 사용하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으로 전쟁을 끝내고, 지난 70년 오지 못했던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모아 전 세계가 공명할 만큼 큰 목소리로 함께 외칩시다.

+ 이 서명은 남,북,미,중을 포함한 한국전쟁 관련국 정부와 유엔에 전달될 예정입니다.